

서부지법 폭동과 미국 정치의 교훈

무법 광란 되풀이냐 법치 회복이냐, 기로에 선 한국 보수

김서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021년 미 의회, 2025년 한국 법원 지도자가 부추긴 선을 넘은 폭동

트럼프 재집권하자 폭도들 사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폭탄 용인

부당한 협박·폭행 발붙일 수 없게 각계가 한목소리 규탄 엄벌해야



2021년 1월 미국 의회 폭동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가 미 의회 의사당에 난입,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주었다. 이는 어떠한 폭력도 현재 권력의 입맛에만 맞으면 괜찮다는 메시지를 남겼으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법부의 판결과 권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 직전 바이든의 가족 사면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선례였음은 물론이다!)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한국 사회가 선 기로에 대해 생각한다. 미 상원의원들처럼 법관들이 자신이나 가족이 화를 입을까 근심하고, 취재진들이 협박 및 폭행당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서부지법 폭동은 눈앞에 보이는 부서진 기물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큰 상해를 입힌 것이다. 게다가 두 나라 모두에서 폭동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정치권이 폭동을 어떻게 다루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유사한 사건들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이다. 다음 보수 대선후보가 부정선거론을 전면으로 내걸고, 폭도들을 정치적 인질이자 애국의 상징으로 옹호하며 정권을 잡게 되면 이들을 사면하는 것이다. 정반대의 시나리오는 각계가 한목소리로 서부지법 폭동을 규탄하고, 다시는 법치주의에 대한 폭력적인 도전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현행법들은 물론이고 타리 오처럼 현장에 없었다라도 폭동을 조직적으로 선동한 인물들 또한 엄벌하는 것이다.

미국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약칭 1·6 폭동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불과 2주 남긴 1기 도널드 트럼프 정권 막판에 일어났다. 그 전부터 줄기차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해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날, 선거 불복 및 트럼프 지지를 외치는 시위대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죽도록 싸울 것입니다(We'll fight like hell).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다시는 나라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략) 우리는 의회 의사당으로 갈 것입니다.”

정작 이 말을 한 대통령 자신은 의사당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수천 명에 달하는 시위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으로 난입했다. 상당수는 총기로 무장한 상태였고,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공포에 떨며 대피한 의원들을 찾아다니기까지 했다.

특히 최종적으로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역할을 맡은 당시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원임에도 큰 위기에 처하고 말았는데, 트럼프는 연설에서 일곱 번이나 펜스를 언급하며 그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옳은 결정(right thing)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펜스는 그럴 법적인 권한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그러자 시위대는 울가미를 갖고 와 “펜스를 목매달아라!”라고 외쳤다.

울가미 들고 “펜스 목매달아라!” 외쳐

최종적으로 사태가 진압되기까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1500명이 기소되었으며,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의 전 리더인 엔리케 타리오 등 주요 주동자들은 내란 음모 혐의로 수십 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소추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1·6 폭동 주모자들 14명을 감형하고 나머지 관련자 1500명 기량을 조건 없이 완전 사면(full, complete and unconditional pardon)을 했다.

31일에는 1·6 폭동을 담당하던 검사들 수십 명이 워싱턴 검찰청에서 해고되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의사당 폭동을 자신의 정치적

인 자산으로 삼았다. 1월 6일을 ‘사랑의 날’이라고 부르고, 참여자들을 애국자이자 억울하게 수감된 정치적 인질들이라고 부른 바 있으며, 폭동에 가담했던 수감자들로 구성된 J6 교도소 합창단(J6 Prison Choir)과 노래를 녹음해 선거 집회에서 틀었다.

또한 1·6 폭동이 구국을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는 식으로 규정하며, 일부 애국자들이 흥분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중에 기자가 묻자 트럼프는 태연하게 펜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기자가 펜스 교수형 구호를 직접 들려주자 트럼프는 이렇게 답했다. “상식이기 때문이죠, 존. 지켜야 할 상식이죠. 투표가 부정 투표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펜스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의회에 전달할 수 있나요?”

트럼프 취임 전인 1월 19일에 한국에서 벌어진 서울 서부지법 폭동은 미국의 의사당 폭동과 흡사하다. 둘 다 별다른 증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직 대통령이 있다. 한국의 시위대로 미국의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 구호를 차용하였으니 사용된 구호도 같다. 둘 다 불법 난입, 경찰 폭행, 그리고 과격한 기물 파손이 동반되었으나, 지지자들은 이를 애국심의 발로이자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흥분한 폭도들이 “펜스 어딤어! 펜로스(당시 하원의장) 어딤어!”하던 모습은 서부지법에서 폭도들이 쇠망둥이를 들고 영장판사를 색출하려던 모습과 동일하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 폭행 또한 양쪽 모두 발생했다. 추후 대통령들이 내란죄로 탄핵소추된 것도, 외부의 반대 세력이

폭동을 유도했다는 음모론까지도 똑같다.

미국에서는 폭동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그의 퇴임 직전 상황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올해 초 은퇴한 정치인이자 2012년 공화당 대선주자였던 및 롬니는 2023년 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물리적인 위해가 가해질까 두려워 트럼프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실토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동의 충격은 희미해졌고,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관련자 기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특히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줄어들었다.

마침내 재임에 성공한 트럼프의 의사당 폭도 사면은 예상된 바임에도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2025년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 기물을 훼손하고 있다. [EPA=연합], [뉴스1]

윤 대통령 지지자들 두 번째 폭동 벌여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부지법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 특히 공수처의 설립이 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던 걸 생각하면, 또 윤 대통령 영장 발부 및 구속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진 것(일부에선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한다)을 생각하면 자국의 흐름에 대해 반발할 수는 있다.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2월 1일 윤 대통령 측은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며 모임을 열어 현재 상황이 반민주, 반법치 세력과의 “거룩한 싸움”이라며 도와달라고 당부하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국민들이 현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위협받고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모 정치인은 체포된 청년들이 안타깝다며 무료 변론을 제안하고, 추가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어떤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에서 변호사를 불러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호소하고 있다. 이 기로에서 국민의힘은, 한국의 보수는 윤 정권 이후로 어떤 가치와 정책적 입장을 계승할 것인가. 서부지법 사태를 확실하게 규탄하고 거리를 둘 것인가, 아니면 지지자들을 잃을까 두려워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며 침묵할 것인가.

롬니는 의사당 폭동 당일 저녁, 상원이 선거 결과를 인증하기 위하여 재소집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우리는 공화국의 힘, 민주주의의 힘, 그리고 자유라는 대의보다 우리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Do we weigh our own political fortunes more heavily than we weigh the strength of our Republic, the strength of our democracy, and the cause of freedom?)” 이 혼란 속에서 각 정당 그리고 정치인 개개인은 어떤 가치를 가장 중하게 지킬 것인가.

<경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김서영 서울대 조교수,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사회과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정치, 정치학 방법론, 계산사회과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으며,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3년, 서강대에서 1년을 거쳐 서울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왕2길3(서왕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